

종교계 대선후보 줄서기 '눈살'

개신교 각 단체들 이명박 후보 공개지지 불교계 특정후보 초청 행사·지지 선언도

대선 막바지 '종교계 대선 줄서기'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선이 뜨겁다.

개신교의 경우 노골적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개신교의 '뉴라이프 전국연합' '기독교 사회책임' 등의 단체가 이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지를 보내고 있는 한편, 서울 금란교회를 서울 소망교회 등 개교교회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라'고 설교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심지어 12월 10일 뉴라이프기독교연합이 주최한 '대선을 위한 특별기도회'에서는 '청와대에 찬송과 기도 소리가 메아리치게 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 측은 13일 '일부 교회의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가 자칫 종교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교회에 자중을 촉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상)는 12월 13일 '황금 2008 부산불교지도자대회'에 이명박 후보를 참석토록 해 뒷말이 무성하다.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이 후보는 종교편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불교 신자 못지않은 역할을 하겠다. 오늘 모임 참여를 계기로 이 시간부터 대한민국 불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날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대상 스님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삼광사 주지 영계 스님, 흥교 스님, 정각 스님, 정여 스님, 공병수 신도회장, 부산실업협회 김윤환 회장 등 부산지역 스님과 불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선을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대선후보가 참석하는 자리를 마련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해륜 스님은 "이 법회를 정치적 성향으로 오해하는 소리가 있지만 순수한 종교적 모임이자 2008년 새 세계를 위한 자리"임을 강조했다.

행사에 이 후보만 참석할 이유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이 후보를 직접 초대할 적은 없다. 이명박 후보 측에서 알아서 찾아온 것이다"며 "이 후보가 불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부산 경남 지역의 정치 활동을 위해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종교계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12월 12일 부산불교연합회가 주최한 부산불교지도자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후보의 모습.

한편, 불교인권위원회 진관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소속 스님 225명은 12월 13일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불교계 입장'이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같은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 국민을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그 아래 공직자들에게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겠냐"며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적이지 않고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깨끗한 후보인 정동영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자, 참가자 명단에 포함된 몇몇 스님들이 "지지를 한 적이 없다"며 이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12월 12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총연합회장 의문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불교신자 2007명이 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공동대표(서강대 교수)는 "종교와 정치가 유착되는 것은 결국 종교의 권력화를 부추기게 된다"며 "시민운동 차원이나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정교유착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령 기자

조계종 교육원 제7기 위원 위촉

교육위원장 종석·교재편찬위원장 지현·역경위원장 통광 스님

조계종 교육원(원장 정화)이 제7기 교육원 각 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1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교육위원장에 종석 스님(중앙승가대 대학원장), 교재편찬위원장에 지현 스님(송광출원장), 역경위원장에 통광 스님(쌍계사 승가대학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위원회 임명은 12월 6일 제6기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종단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연구 수립하고, 교재편찬위원회는 종단 교육기관의 교재를 편찬하며 종단이 지정하는 출판물의 검수 및 편수를 맡는다. 역경위원회는 종단의 불전 번역 사업을 관장하는 위원회로 역경사 양성을 할 수 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명단이다.

▲교육위원회: 지현(조계종 기본선원장) 종호(동국대 석학과 교수) 종석(중앙승가대 대학원장) 법인(화엄학원 학장) 도일(파계사 출원장) 우진(통도사 승가대학원장) 덕문(중앙총회의원) 흥륜(문헌사 승가대학 강주) 제호(중앙총회의원) 스님.

▲교재편찬위원회: 정인(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성빈(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지현(송광출원장) 법장(선운사 승가대학장) 법진(해인사 승가대학장) 선행(백양사 강주) 원일(前 범어사 강사) 분각(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지형(청암사 승가대학장) 스님.

▲역경위원회: 통광(쌍계사 승가대학장) 정우(중앙승가대 교수) 지오(범어사 승가대학장) 학담(중앙총회의원) 정원(봉선사 능엄학원 학관) 지안(은혜사 승가대학원장) 덕문(통도사 출원장) 해주(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적연(봉녕사 승가대학 교수)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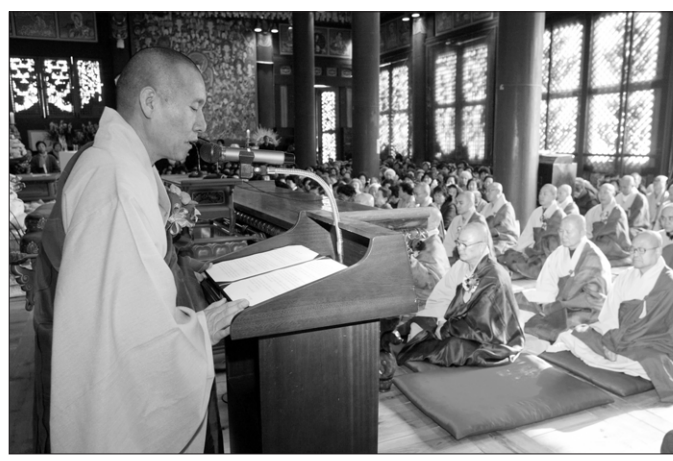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종헌종법제개정특위 위원장에 정휴 스님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자승)는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이하 종헌종법특위)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정휴 스님을, 간사에 성호 스님(영목사 주지)을 각각 선출했다.

총회의원 9인으로 구성된 종헌종법특위는 지난 11월 총회 때 설치가 건의된 것으로, 입법사항 미비나 상충되는 안에 대한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여수령 기자



조계사 주지 원학 스님이 12월 13일 대웅전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한국불교 근본도량으로 거듭날 것"

조계사 주지 원학 스님 취임법회 대웅전에서 봉행

조계사 주지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부장) 취임법회가 12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교육위원장 정화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일문 스님, 김중용 종로구청장, 윤원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원학 스님은 "전임 소임자가 일 귀농은 위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 하고 직역사찰 본래의 의미를 되 살리겠다는 총무원장스님의 뜻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근본도량으로 키워나가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또한 각종 법회의 내실을 다져 인재발사에 힘쓰고 지역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선원 등의 불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포살 법회를 정례화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현대불교 후원 : (국번) 038-25-0008-365 예금주: 에이치비엠씨

월정사 주지 후보에 정념·정수 스님

15일 신중총회서 주지후보 선출

조계종 제4구분사 평창 월정사 주지후보에 현 주지 정념 스님과 원주 입석사 주지 정수 스님이 출마했다. 두 스님은 입후보등록을 하며 월정사의 총림 추진을 비롯한 교구 발전 공약을 내세웠다.

월정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행)는 12월 15일 신중총회를 열고 주지후보를 선출한다(14일 현재).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제183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 자격을 확정하고 151인의 선거권자 명부를 확정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2008년부터 호적제가 폐지됨에 따라 선거관리 시행규칙(10조 1항)을 수정해

야 한다는 판단 하에, 변호사 자문을 거쳐 다음 회의에서 규칙을 수정하기로 했다.

여수령 기자

태고종 31기 합동독도 수계산림

태고종은 내년 1월 23-24일 제31기 합동독도 수계산림을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진흥관에서 개최한다. 1월 23일 오후 2시 입소해 24일 오전 10시 수계식이 봉행된다. 동방불교대학 승가학과 재학생 중 행사준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참가가 가능하다. 수계독도신청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12월 27일까지 신청 마감한다. (02) 739-3450

해철 총정사장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게 정착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사건,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홍보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저장 여시아론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광주지사 : (062)268-1508
전북지사 : (063)910-5199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대한불교선종 제3대 종정 효담 큰스님 추대식

모시는 말씀

귀의 삼보하우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가람 수호와 수행 정진에 노고 많으신 대덕 큰스님과 각 사암 주지스님
대표임원들께 불보살님의 가피덕이 충만하기를 발원하나이다.

오는 불기 2551년 12월 25일 전임 종정 도원 큰스님 임적으로
공석인바 제3대 종정 효담 큰스님 추대식과
사단법인 문화관광부 등록 제2007-15호로 승인 축하법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암 주지스님들께 건강과 성불하시길 기원합니다.
각 사암 불자님들도 초청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 주최 :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총무원장 정관

- 일시 : 2007년 12월 25일(음력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포항시 공설운동장 앞 「청솔밭웨딩홀」
- 문의 : 총무원 054)748-0462 · 016-509-0462
총본산 054)261-7777 · 011-516-7474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제2007-15호 [총본산: 칠포 대원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종 [총무원: 남산 천선사 (경북 경주시 동빙동 831-99번지)]

교통편 안내

- 버스 : 102, 107, 200 (위치 : 포항종합운동장 정문 맞은편)
- 시외버스 :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이용 약 1.5km)
- 고속버스 : 고속버스터미널 (택시이용 약 2.5km)
- 자가운전 : 대구, 포항고속도로 이용
- 대원 I.C 경주, 대보방향 → 유급 I.C 포항방향 → 대정사거리 우회전 후 직진 종합운동장 방면
- 청솔밭웨딩홀 TEL. 054)283-0077~8